

통권 제 234호

강남. 라 00943

2567
2023

04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11
큰 단련의 시간



마음챙김 메커니즘
마음의 의미



마음의 등불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교충지중

마음

불법은 체가되고 세간법은 그림자라. 마음이 착해지면 현세가 곧 극락이요,
본체가 곧게 되면 그림자도 곧아진다. 마음이 악해지면 현세가 곧 지옥이다.



십선성취 _ 42

행복에 대한 단상

_ 남해 정사



여행여담 _ 56

울릉도 트위스트 中

_ lovely찌이



나만의 빛 모두의 빛 _ 60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_ 한국전통등연구원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10 불교이야기

16 산책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23 경전에서 찾은 지혜

26 살다보면

32 붓다in미디어

35 문화재 해설

38 지혜의 트랙

42 십선성취

46 속담으로 보는 불교

50 마음의 등불

53 차항기

56 여행여담

60 나만의 빛 모두의 빛

64 서원당 안의 불교

66 마지막 공부

70 씨앗 한 알

72 금쪽상담소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78 법화일정

불공 잘해라 - 제2장 큰 단련의 시간 - 김천

행복의 조건 - 화경 정사

목어 - 오대혁

마음의 의미 - 임진수

진실한 말은 무궁한 보배다 - 불교총지중 법정원

사람의 품격 - 이옥경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 TERU 조세훈

나귀에서 떨어지는 진단선생 - 위드다르마 편집실

위기에 필요한 것은 애국심 - 방귀희

행복에 대한 단상 - 남해 정사

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 김성철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 이기찬

24절기와 곡우, 그리고 곡우차 - 김정애

울릉도 트위스트 中 - lovely찌이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움훔야호사의 수인, 지권인 - 해광 정사

눈이와 풀이 - 유소림

이토록 강력한 마음의 힘! - 법상 스님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이심전심

오래전 한 회사에 다녔을 때 일입니다.
작은 회사라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에게
병이 생겼는데, 가난했던 저희 집 형편으로는
치료를 위해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사정이 어려웠던 상황인지라
할 수 없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5년간이나 함께 일했던 직장동료들은
저의 사정을 알지만 그만둔다고 하자 다들
서운해 했습니다.

제 급한 사정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했는데
밖에 서 계셨던 사장님이 저에게
쪽지와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일 해줘서 고마웠는데
사장이 되어서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부디 어머니께서 쾌차하시길 빌고 힘내게.
이거 적지만 나하고 회사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거야.”

봉투를 받기도 전에 울컥하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니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돈과 권세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난으로 삶이 힘들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는 동료가 곁에 있다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3년 2월 23일 자>

불공 잘해라 제2장 큰 단련의 시간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8화 - 전쟁(4)

대성사는 진리를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간절함으로 실제 닦아 경지에 도달하는 단계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진리를 사상적으로 사유하여 이해하고 배워 닦는 데만 그쳐선 안 된다. 그 진리를 오로지 자기 생명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전인적인 체현에 도달해야 한다.”

결국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생각하고 부르는 바가 관세음보살과 한 몸 되는 경지로 이끌며, 보살의 서원을 다짐하는 것으로 우주 법계의 진리가 자신의 생명처럼 실천된다. 일념의 기도를 통해 나와 진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고요히 무엇인가를 염하는 모습에서 한 치 흐트러짐이 없어 그 안색과 안광이 빛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난리 통에 어

지러운 민심 사이로 도인이 났다는 소문은 소리 없이 퍼져갔다. 이리저리 대성사를 만나길 바라는 이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집으로 학교로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갔다.

대성사는 그들을 전쟁의 와중에 잃어버린 자식 같이 보았다. 자신을 내세워 높이거나 사사로이 따를 것을 바라는 대신 자신이 얻은 바 진실에 다가서고 마음의 고통을 넘어 고요함에 이르는 방법을 일러주었으니, 오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한시라도 소리내어 염하라고 당부하였다. 다만 말로써 하는 것이라면 그 감응이 없었을 터이나 실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은 흔들림 없는 불보살의 현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자연 몸과 마음을 조복하여 그를 따르는 이들이 생겨났다.

평판은 따로 말하는 이가 없어도 멀리 퍼진다. 작은 소문은 울림이 되고 더 큰 힘을 세상에 전하는 법이다. 전쟁을 겪으며 마음 둘 곳이 없던 이들에게 대성사의 모습은 하나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던 차에 대성사 집으로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양복을 말쑥이 차려입은 풍채 좋은 신사가 자가용 지프에서 내렸다. 당시 지프차는 귀하기도 했지만 아무나 탈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 기별 없이 찾아온 지프차를 보고 궁금증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대성사를 찾아온 이가 누구인지 모두 궁금했다.

회당^{회堂} 손규상^{孫珪祥}. 불교를 배우다가 육신의 병고를 이기려 100일 정진 후 깨달음을 얻어 1947년부터 대구 인근 달성군 성서면 농림촌을 시작으로 경주와 포항 등 경상북도 일대에서 새로운 불교를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었다.

교화의 근거지였던 포교당을 참회원^{懺悔園}이라 부르며, 자신이 체득한 밀법^{密法}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이전에 없던 가르침을 펼치자 세상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비록 자증 자득하였다고 하나 법을 펼치는 일은 쉬운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갖추어야 할 교법과 교단의 형태를 바로 세울 일도 필요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종단의 기틀을 만들고 이 땅에 밀교를 전할 사람을 찾게 됐다. 그러던 중 대성사의 소문을 들었고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밀양으로 온 것이다.

대성사는 차에서 내린 회당 대종사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심전심으로 안 것이다. 두 거인은 자신을 소개한 후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았다. 말 한마디가 무거웠고 눈짓 하나가 진실하게 방안을 울렸다. 손규상 대종사는 월성 손씨로 대성사와 비록 본관은 달랐지만 성씨는 같아 먼 친척을 본 것과 같이 대했다. 금강관이 내온 다과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대성사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을 물렸다. 짧



삽화= 종조 일대기 (불공잘해라) 중에서

은 침묵이 이어진 후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회당 대종사가 입을 열었다.

“나와 함께 뜻을 세울 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란으로 세상의 고통은 깊어졌고 사람들은 나와 남으로 갈려 서로에게 미움의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세상을 구해야 할 것이고, 여기 내가 믿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성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대성사는 수행 중 자신에게 닥칠 운명과 앞길을 예감하고 있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자신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심하고 있던 터였다. 그 깊은

마음의 심지에 대해 어느 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국가와 사회가 있어야 내가 생존하지 않는가. 한 쪽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구도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에게 목숨을 바쳐 귀의한다는 것은 이 정신적인 생명을 부처님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처음 만남이지만 두 성인은 마음이 맞았다. 회당 대종사가 제안한 것은, 밀교 교법을 펼쳐 종단을 일으키는 데 자신은 바깥일을 도모할 테니 교리와 수행체계를 그리고 교단을 정비하는 일 등 안 일은 대성사가 맡아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수행도 결국은 작은 나에게서 벗어나 대아(大我)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니 자신의 안락을 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번거로움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일었다. 결국 회당 대종사의 구함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또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었다. 그것이 자신이 고통 속에서도 일심을 잃지 않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불교를 공부한 본면목인 것을 알았다. 대성사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내려놓고 행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긴 바 있다.

“나(我)란 자기 이익을 구하고 편안하길 바라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자기 의견을 세우게 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아의 속

박을 받아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부처님께서는 나란 결코 불변의 실체가 아니란 것을 가르치셨다.

나에 집착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노여움과 욕망의 망념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게 되고,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여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란 것에 집착하는 것은 중생이며, 나를 오직 멸하려고 수행하는 것은 소승(小乘)이다. 작은 굴레에 스스로 갇힌 소아에서 일체 중생을 위해 자기 굴레를 넘어선 대아로 나아가는 것이 곧 대승(大乘)의 길이다. 그로부터 대아를 세워서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해 이익되게 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모든 일에 봉사하기 위해 자기를 닦아가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현세를 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와 같은 뜻이 있어서였으며,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위기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을 다해 수행하는 일도, 자신과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모두를 위한 구제의 길을 세우겠다는 대아의 실천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그 첫 만남은 한국 현대 밀교가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찰나의 순간이 영원한 역점의 시간을 진리로 이끈 것이다.

행복의 조건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에게 행복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해 지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1. 적절한 건강 수준
2.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
3. 긍정적인 인간관계
4. 성취감과 자기만족감
5.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6. 내적 평화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
7. 유익한 취미나 관심사 즐기기
8. 공동체에 대한 기여

인공지능은 너무 당연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면서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인공지능이 대답한 것은 무척 똑똑한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든 행복의 조건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세 번째 든 것은 긍정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동반자 등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주위 사람들에게 멸시 받고 욕을 얻어먹는다면 결코 행복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돈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든 말든 비난 받을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복의 조건은 성취감과 자기 만족감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도전과 목표 달성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건강도 경제적 풍요도 누리고 있는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일에 보람을 가지고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

지요. 이것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으로도 이어집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행복을 이루는 데에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 있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자아존중감이 없으면 어둠의 세계에서 자신을 비판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동이나 약자에 대한 학대, 괴롭힘 등도 다 이러한 자신감과 성취감의 결여에서 오는 정신병적 증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적 평화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입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백만 대군을 정복해도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담마빠다』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적 평화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유익한 취미나 관심사 등을 통해 삶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적 평화를 위해서는 불교 수행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불교는 늘 조용히 스스로를 관조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다

른 종교처럼 소리 지르면서 믿습시다만 외치며 자기 최면에 걸려 위안을 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불교이지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부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보시으로써 공덕을 쌓으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행복의 조건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든 행복의 조건들을 간단히 간추려 보면 건전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성실히 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곧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일이며 스스로에게도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의 조건들은 불교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불교의 근본이념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근본목적은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계정해 삼학과 팔정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대승불교의 오대서원도 사실은 이러한 행복의



불교총지중 진주 화음사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는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주겠다는 이타심으로 이웃을 이롭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저절로 유지되며 지혜와 복덕을 쌓아서 일상생활을 복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지무변서원집(福智無邊誓願集)’은 복덕과 지혜를 쌓아서 생활을 안정되고 슬기롭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법문무변서원학(法門無邊誓願學)’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법문으로 삼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모두 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법문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과 성취감이 저절로 갖추어 질 것입니다.

‘여래무변서원사(如來無邊誓願事)’는 모든 사람들을 불성을 갖춘 부처님처럼 보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도 행복할 뿐더러 사회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위없는 보리도를 얻도록 서원하는 것인 ‘보리무상서원증(菩提無上誓願證)’은 궁극의 행복을 바라는 서원입니다.

깨치지 못한 세계의 행복은 언젠가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세속의 행복을 초월한 영원불변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면 무상보리를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불교 자체가 곧 행복을 얻기 위한 가르침이고 실천 방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목어

오대혁

동국대학교 고전문학 전공
문화비평가
논문 및 저서 <원효설화와 미학>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공동시집<시의 끈을 풀다> 등

비워야 날 수 있다
내장을 비우고
살점도 비우고
벗속까지 비워야
텅 빈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

깨어 있어야 날 수 있다
새벽 닭이 화를 치며 울 때에도
들녘의 나리꽃과 눈맞춤 할 때에도
잠을 자면서도 깨어 있어야
사나운 부리의 술개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다

날개 없는 물고기가 하늘을 날듯
맑은 눈 휘둥그레 뜨고서
일대사 밝혀내려
비우고 비우고
눈 뜨고 눈 떠서
가을 숲속을 날아올라야 한다

날개 없는 물고기가 하늘을 날듯
기적은 텅 빈 목어의 울음이다



*사찰마다 목어는 다른 모습이다. 그림은 오대혁 시인이 그린 '낙산사' 목어.

마음의 의미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1. 마음의 의미

명상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단어이다. 명상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이 난다. 한 번씩은 들어 본 ‘마음챙김’이란 말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런데 명상을 접하면 접할수록 이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분명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단순했던 의미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 이것이 마음인가 싶으면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싶으면 또 다른 뜻으로 쓰여 점점 더 그 의미를 아는 것처럼 모르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명상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하나는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면서 마지막에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란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마음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마음에 대해서 크다/작다, 넓다/좁다, 강하다/약하다, 가볍다/무겁다 등과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복잡하다’, ‘마음에 두다’, ‘마음이 풀리다’, ‘마음을 주다’, ‘마음이 돌아서다’, ‘마음이 굴뚝같다’, ‘마음에 차다’, ‘마음이 통하다’, ‘마음에 없다’, ‘마음을 썩이다’, ‘마음이 곱다’, ‘마음을 놓다’, ‘마음의 문을 열다’, ‘마음을 내다’ 등 수많은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정	마음을 놓다, 마음이 곱다, 마음을 썩이다, 마음에 차다, 마음을 주다, 마음이 풀리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
생각	마음에 없다, 마음에 두다, 마음이 복잡하다.
감정+생각	마음의 문을 열다, 마음을 내다, 마음이 통하다, 마음이 돌아서다.
욕망/욕구	마음이 굴뚝같다.
정신	몸과 마음, 몸과 대별되는 단어(육체)
마음 그 자체	크다/작다, 넓다/좁다, 강하다/약하다, 가볍다/무겁다

이렇게 살펴보면 생각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가지 의



미로 쓰이며, 아무 생각 없이 써온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용법들로 인해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초심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이해하기 어려워지면 명상을 시작할 때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금 하다가 싫증이 나거나 지루해지기도 한다. 특히 불교명상을 공부할 때, 불교경전을 보거나 이론서를 볼 때 어려운 한자나 문구, 또는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우면 좋겠지만 수많은 명상가들 중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 홀로 많은 시간을 글공부에 투자해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그러나 글공부만 하다보면 정작 필요한 마음 그 자체에 대한 공부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어설픈 수행경험과 이론만 무성한 어정쩡한 이론가가 되어버린다. 논리는 욕망이고 욕망은 번뇌를 낳는다. 결국 논리적인 이론이 번뇌를 키운다는 견해를 가진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괴로움을 없애려다가 더 큰 괴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진실한 말은
무궁한 보배다

불교총지종 법장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특성과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 및 이해로 인해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한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지만, 처음 명상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그 의미를 정리해보고 가능한 만큼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버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다 믿으며, 설혹 빈궁하여서 재산이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왕과 같이 공양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가운데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의 광명은 못별 가운데 달의 광명과 같다.

모든 보배 가운데 진실한 말의 보배가 가장 좋으며, 생사의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고자 하면 모든 배 가운데 진실한 말의 배가 가장 좋으며, 일체의 악행을 버리고자 하면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등불 가운데 진실한 말의 등불이 가장 좋으며, 일체 악한 것을 착하게 인도하자면 진실한 말로써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일체 세간에 쓰는 물건 가운데 진실한 말의 물건이 제일 좋으며, 일체 병을 고치는 모든 약 가운데 진실한 말의 약이 가장 좋다.

모든 세력 가운데 진실한 말의 힘이 가장 좋으며, 일체의 귀향^{歸向} 가운데 진실한 말에 귀향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일체의 지식^{知識} 중에 진실한 말이 제일 좋은 것이다. 만일 사람이 진실

한 말의 재물을 취하면 세간에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빈궁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정법염처경, 正法念處經』

양설하여 다른 이 해치지 않고 악담이나 욕설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과 꾸밈 말 앓는 사람은 다섯 가지 좋은 것 항상 얻는다. 말에 신용 있고 존경 받으면 입에 향기 나고 치아가 좋다. 천상에 나면 천인의 사랑을 받고 인간에 태어나면 부귀 누린다.

보살은 고요하게 입을 지켜서 설하면 결함 없이 진리에 맞고 상대가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성실하면 모두 다 그를 따른다.

나라나 부모 재물 위하여서도 결정코 거짓말과 두 말을 하지 말지니 늑도록 남의 비방 입지 앓음은 진실하고 착한 말 한 공덕이니라.

『분별선악소기경, 分別善惡所起經』 불교총전 발췌



사람의 품격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얼마 전 새벽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다.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해 잠시 멈췄던 내 차를 이미 주차해 있던 다른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며 빵! 격투기로 따지면 경량급 대 중량급이라고나 할까. 배기량 1,000cc도 안 되는 나의 애마를 그 두 배가 넘는 큰 차가 들이받은 것이다. 운전한 지 30년이 다 돼 가지만 처음 당하는 사고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손발이 다 후들거렸다. 부딪히는 순간 느껴지던 충격파로 미루어 보아 어디가 깨지거나 찌그러졌겠다 싶었는데 걱정과 달리 조수석 앞 범퍼가 굽혔을 뿐 차체는 멀쩡했다.

범퍼는 차체를 보호하는 장치인 바, 깨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평소의 생각대로 툭툭 털어버릴 참이었는데 문제는 상대 운전자의 태도였다. 남의 차를 들이받아 놓고도 멀뚱히 선 채 미안하다는 기색조차 없이 강 건너 불구경이다. 놀라서도 아니고 염치가 없어서도 아닌, 뭐 그 정도쯤이야 하는 표정에 화가 날 수밖에. 이쯤 되면 감정에 날이 선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탕감해 주려던 마음을 접고 그의 휴대전화에 신호가 가는 것까지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다짐도 받았다.



운동을 마치고 나오니 때마침 사고를 목격했던 동료가 내 차를 요리조리 살펴보고 있었다. 범퍼의 굽힌 자국이 꽤 심한 것도 그렇고, 바퀴 둘레의 휠 하우스 커버가 꺾여 있어 안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단다. 동료의 조언대로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 카센터에 들렀다.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주치의(!) 정비기사님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깐, 충격 때문에 꺾인 휠 하우스 커버를 원래대로 밀어 넣어 주고, 빈 구멍 두 개에도 나사 같은 걸 꽂아 준다. 게다가 보기 흉한 범퍼의 흠집도 칠을 하는 게 좋겠으니 스프레이와 붓으로 된 차량용 페인

트를 사 오라는 것이었다.

서론이 길었다. 이제부터 내 차를 들이받은 중형차 운전자의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성토했다. 그런 사람이 글 한 줄 읽을 일이 있겠냐만(글이라도 한 줄 읽었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바람결에라도 자신의 비열함을 전해 듣고 아이고, 내가 그랬네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집에 돌아와 상대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다. 대뜸 전화를 걸어 이려고저려고 한다는 게 내키지 않기도 했거니와 상대방에게도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서였다. 다행히도 크게 망가진 곳은 없다며 카센터에서의 일을 간단히 설명하고, 최저가 상품이 나와 있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사진과 함께 소액이지만 포인트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런데! 답이 없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던 날 다시 가부간 답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감감무소식, 일주일 이 지나도록 소 죽은 귀신이다. 문자를 읽은 건 확실한데 하다못해 내 물음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답조차도 없으니 약이 오를 수밖에. 사람 속은 천 길 물속이라 했던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라는 속담이 저절로 떠오를 지경이었다.

내 얘기를 들은 가족이나 친구들 모두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야단이었다. 모르쇠로 버티면서 작은 것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맛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증거 사진도 찍어 두었겠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겠다, 문자 기록도 남아 있겠다, 솔직히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보상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그가 꽤 씹해서. 법의 제재야 받겠냐만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하는 번거로움으로 그를 응징하고 싶어서.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대신 그에게 증거 사진과 함께 ‘매너가 사람의 품격을 말해 준다. 큰 차, 좋은 차가 곧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그 일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하찮은 일 때문에 머릿속은 뒤죽박죽, 마음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는 것 같아서였다. 그렇다고 불쾌한 기억을 싹 털어 버리고 평온을 되찾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주차장에 즐비한 차를 살피면서 같은 차 같은 번호를 찾고, 길거리에서도 같은 차종만 보면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으니 이것도 참 증병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예의나 책임감조차 보여 주지 않았던 그가 후안무치한 이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진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열을 받게 되니 말이다. 내가 웅졸한 건지 마음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모양이다.

특히 아량이 넓지는 않지만 만약 그가 미안하다거나 돈이 없어서 성의조차 표시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답을 보내왔다면 나는 아주 선선히 괜찮다, 부담 갖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분노하는 건 그의 뻔뻔스러움이다.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 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코웃음을 쳤을 것이며, 문자쯤이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그런 일이 단지 그 한 사람만의 문제이겠는가. 너야 먹든 굶든 내 배부르면 그만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양심이 밥 먹여 주나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부류가 좀 많은가 말이다.

하지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건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혹시 ‘본받고 싶은 간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2~3년 전쯤 모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말 그대로 본받고 싶은 간부에게 준 이 상은 ‘소중한 인연’상, ‘손 맞잡고 걸어온 그 길’상, ‘나와 너, 그리고 우리’상, ‘행복 바 이러스’상 등 수상 부문부터가 따뜻하다. 세세한 감사의 정을 듬뿍 담은 상패의 내용도 뭉클하다.

예를 들자면 ‘소소한 일에도 눈물짓는 당신의 따사로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 문화 가족은 이를 위안 삼으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

었다.(손 맞잡고 걸어온 그 길 상)’, ‘두툼한 다운점퍼보다 따스한 병어리장갑보다 포근한 말 한마디가 더 그리운 이때 선후배 틈에서 모나지 않게 앞장서서 이끌어 준 당신, 늘 힘이 됐다.(나와 너, 그리고 우리 상)’와 같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누군가의 한 마디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다른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누군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다른 누군가를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리기도 하는 각박한 세상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건 ‘미안해’와 ‘고마워’의 공존,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공감과 나눔일 것이다.

한 번 더 몽니를 부려 보자. 어떤 미사여구로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그의 몰염치를 알고 있으니, 그 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탓하지 말고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하지 말며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만을 생각하라’라는 법구경의 말씀대로라면 맞다. 툭툭 털어 버리지 못하는 나도 도긴개긴, 나 역시 무례한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TERU(조세훈)

평범한 회사원, 대중음악연구소 음악평론가 제의를
받을만큼 음악과 영화를 관하는데 능하다.
콘텐츠 소개 프로그램 올레티비<파본자들> 출연
500여명 구독자 보유 브런치 작가



#1 스타워즈 6부작(1977~2005)

#2 그녀(Her, 2013)

#3 사랑의 블랙홀(1993)

#4 매트릭스(1999)

#5 아메리칸 뷰티(1999)

#6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2003)

#7 천년을 흐르는 사랑(2006)

#8 위대한 레보스키(1998)

#9 파이트 클럽(1999)

#10 엠티 오브 투모로우(2014)

#6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Lost In Translation, 2003)

감독 소피아 코폴라

일상이 무료하고 외로운 밥 해리스(빌 머레이)와 샬롯(스칼렛 요한슨)은 도쿄에 놀러 온 미국인이다. 같은 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밥과 샬롯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 호텔 바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두 사람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이끌리게 된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들 둘은 고립됨과 동시에 내면에서 지혜를 찾는 것에 고착되어 있다.

영화배우인 밥은 위스키 광고 출연료로 2백만 불을 제안 받았지만, 그 돈은 그에게 어떤 행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샬롯이 그에게 나이가 들면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느냐고 물으니 그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수록 주변 상황에 덜 흔들리게 되지.”라고 답한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혜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라는 불교적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견성성불(見性成佛)’과 ‘돈오점수(頓悟漸修)’로 바라볼 수 있다. 견성성불이란 인간이 본성, 즉 마음을 깨치면 누구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진단타려도〉 나귀에서 떨어지는 진단선생

위드다르마 편집실

을 얻기 위해 ‘돈오점수’의 수행이 수반된다. ‘돈오’는 단박에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는 점진적인 수행을 말한다. 즉, 수행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귓속말로 전한 “난 이제 떠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 있는 게 지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은 불교의 인연설에 가깝다.

여담으로 이 영화는 기자 회견장에서 불교에 대해 떠드는 미국 여배우를 슬쩍 비꼬기도 하고 일본인을 희화화하기도 했지만 상투적인 저널리즘과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 있어 흥미로움을 더한다.

녹색 새순이 돋아난 산길에 신비로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
다. 초봄의 기운이 가득 찬 호젓한 산길을 무대로 한 그림 속에서 한바탕 작은 소란이 일어난 듯합니다. 붓짐을 지고 지나던 행인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나귀에서 호되게 떨어지고 있는 한 선비가 있습니다. 어린 시종은 놀라 들고 있던 짐마저 저 멀리 던져두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허공을 휘저으며 고꾸라지는 선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초록빛 화면이 전하는 기쁜 소식

이 그림은 중국 당 말부터 송 초의 혼란기를 살았던 학자 희이선생(希夷先生) 진단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왕조가 잇달아 흥망을 거듭한 오대(五代)의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하던 진단은 송나라 태조의 등극 소식을 듣자 웃다가 나귀에서 떨어질 정도로 기뻐하며 “이제 천하가 안정되리라”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화제(畫題)로 한 그림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를 통틀어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색적인 것은 세로 1m가 훌쩍 넘는 큰 화면을 가득 채운 장식적이면서도 차분한 필치와 청록의 색채 표



전 윤두서, <진단타려도>, 조선 1715년, 비단에 색, 110.9×69.1cm, 덕수2022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강한라) 제공

현, 감상자의 시선을 그림 속 이야기로 단숨에 끌어들이는 짜임새 있는 구도와 생생한 인물 묘사입니다. 이 그림의 작가가 범상치 않은 기량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화면 왼쪽 위 안개가 자욱한 공간에는 해서체의 단정한 필치로 적어 내린 감상평과 왕의 글임을 뜻하는 ‘신장(宸章)’을 새긴 붉은 도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에 완결성을 부여하듯 자리 잡은 이 제화시는 바로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 남긴 것입니다. 왕의 글이 더해져 한층 더 가치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18세기 초 숙종 연간, 궁중의 서화 취미와 고사도(故事圖) 감상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붓 끝에 시각화된 왕의 메세지

숙종이 감상을 남긴 을미년은 1715년으로, 숙종 재위 41년에 해당하는 해였습니다. <진단타려도>는 40여 년간 그가 쌓아온 경험과 방식에 의해 감상되었을 것입니다. 이 청록의 화면은 서화 감상을 즐겼던 숙종에게 즐거움을 주고, 군주로서 새겨야 할 교훈을 일깨워주고, 그림을 감상하였던 그 순간의 고민과 메시지가 담긴 그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전부였을 수도 있지요.

그 의미는 이 그림을 마주한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담겨 있었든 대폭의 화면을 가득 채운 진한 청록의 색채만큼이나 그 뜻은 상서롭고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위기에 필요한 것은 애국심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송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 〈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벌써 돌아가신지 20년은 넘는 아버지는 월드컵으로 나라 전체가 축제이던 2002년 돌아가셨다. 아버지 49재를 마치고 집으로 온 가족들은 49재를 지내며 훌쩍거리며 눈물을 쏟았지만 집에 와서는 한국대표팀이 골을 넣으니까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아무 말썽이 없는 엄마를 보고 큰언니가 ‘엄마, 미안!’이라고 하자 엄마는 이렇게 말썽하셨다.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당연히 기뻐해야지.”

아버지는 93살에 떠나셨기 때문에 조문객들이 모두 호상이라며 인사를 건넸었지만 아무리 호상이어도 부모를 잃은 상실감은 크기 마련인데 우리나라가 이기는 상황에서는 슬픔이 뒤로 밀려났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는 자기 부모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길 바라는 만큼이나 나라가 부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것을 애국심이라고 한다. 월드컵에 열광하는 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좋아서가 아니라 월드컵 대회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승리를 위해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는 것이다.



축구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K-컬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에는 아낌없는 애국심을 발휘한다. 애국가가 연주될 때 오른쪽 손바닥을 왼쪽 가슴에 살며시 대고 부르는 것은 심장을 뛰게 하는 나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조국인 카필라국에 코살라국이 쳐들어왔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피약별이 내리쬰이는 큰길가의 고목나무 아래 앉아계셨다. 군사를 이끌고 오던 코살라국 젊은 왕 위루다카가 부처님을 보고 말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절을 한 후 물었다.

“부처님, 우거진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 아래 앉아계십니까?”

“백성에게 나라가 없는 것은 그들이 없는 나무와 같은 법이요.”

부처님의 깊은 뜻에 감동한 위루다가 왕은 발길을 돌려 병사들을 이끌고 코살라국으로 돌아갔다. 이 일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있듯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있다. 나라는 고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벗어나면 정체성의 혼란으로 방황하게 된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그들이 되어주는 나무가 없어 피약벌 아래에 있기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다.

1년 넘게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언제 닥쳐올지 모를 폭격에 공포에 떨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무기로 공격하는 전쟁이 우주 시대를 열고 있는 21세기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두어야 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 나라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 땅의 크기 즉 국가의 면적이 넓다고 강대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룡이 멸종한 것은 너무나 몸이 거대해서 자기를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이듯이 전쟁이라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면 오히려 공룡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은 땅이 아니라 국민이다. 애국심으로 무장한 국민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낸다. 한국인의 애국심은 지나칠 만큼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토양이 있다. 얼마 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파견된 한국 사람들은 현지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남을 돕는 이타심도 있지만 한국을 대표한다는 애국심으로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애국심은 위기에서 더 빛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위기에 봉착해있다. 물가가 치솟고,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집단 이익을 위해 집단 시위로 사회 분위기를 투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상대를 포용하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장자의 아내가 죽어 혜자가 조문을 갔을 때, 장자는 다리를 펴고 앉은 채로 쟁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장자의 모습을 본 혜자가 말했다.

“자식을 키우며 함께 했던 아내가 죽었는데 곡은 하지 않고 쟁반을 두드리며 노래나 부르다니, 너무 심하군.”

혜자의 말에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즐거워서 이러는 것은 아니네. 아내가 죽었을 때 나 역시 슬픔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인간의 생명이나 형체도 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네. 그뿐 아니라 형태를 만드는 기조차 처음에는 없었지. 천지가 뒤섞여 있던 혼돈에서 기氣가 나오고, 기가 변해서 형태를 이루고, 그 형태가 변해서 생명이 생긴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다시 변화가 진행되어 형태에서 기로, 기에서 혼돈, 즉 죽음으로 돌아간 것이지 않은가. 이는 계절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이치라네. 속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천지라는 고요한 방에서 편히 쉬려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곡을 한다면, 내가 천명을 모르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이라네.”

위의 장자의 이야기처럼 사람은 기氣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인기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인기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대중들에게서 멀어져 인기가 없어지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요즘 들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살면서 행복을 유지하려면 육체적 건강이 중요하지만 육체적 건강만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다. 위의 장자의 말을 보면 사람은 타인의 기를 많이 받아서 인기가 많아야 행복에 가까워 질 수 있다. 하지만 이외수 작가의 소설 〈벽오금학도〉에 이런 말이 나온다.

‘우주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이니라. 풀과 나무들은 아름답고자 하는 소망에 의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고 씨앗을 싹틔우는 것이니라.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소망은 비단 풀과 나무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이유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즉 행복이란 바로 마음이 아름다워진 상태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 감정이니라. 따라서 아름다움을 모를 때 사람은 불행한 법이니라.’



‘인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 아름다워진 상태’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기는 사람들이 나에게 인기를 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기를 얻기 위해 몸부림쳐도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않고, 인기를 주지 않으면 불행해지게 된다. 수행과 불공으로 마음이 아름다워진 상태가 되면 외부의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함께 행복해지고자하는 자비심이 생기게 된다.

종교라는 것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에 의해 존재

하는 것이고 각각의 종교는 지역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달리하게 된다. 황량한 사막지역에서 태어난 종교는 오아시스로 인도해줄 절대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자를 믿고 따라야만 사막의 꽃인 오아시스의 달콤한 물을 마시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갠지스강의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인도지역에서는 절대자의 인도가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유일신이 아닌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절대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찾고자 출가하셨고 깨달음을 얻은 후 우리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바른 길을 보여주셨다.

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랑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은 사람 키 정도의 길이에 해당한다. 사람 키의 천 배가 되는 깊은 물속이라고 해도,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잠수해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키가 한 길에 불과한 사람의 마음속은 남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그 겉모습이나 표정, 시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남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이 있는지 어지간히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알 수는 없다.

이 속담의 교훈은 불교수행에도 적용된다. 누군가 수행을 통해 어떤 경지에 올랐을 때, 그가 체득한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남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아라한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잡부(雜部) 니까야의 자설경(Udana) 가운데 『밧디야경(Bhaddiya Sutta)』을 보면, 사리불이 갖가지 방편으로 난장이 밧디야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하신 부처님께서 밧디야는 이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훈계하시는 장면이 있다.

사리불은 난장이 밧디야가 아직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유학위(學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범부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아라한조차 다른 아라한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부처님만은 한 길 사람속도 아신다.

탐욕, 분노, 교만, 우치와 같은 모든 번뇌를 제거하여 아라한이 되면 다음과 같이 자증(自證)의 오도송을 노래한다. “나의 삶은 다했다. 청정한 행은 이미 세웠고, 할 일을 마쳤으니, 내생의 삶을 받지 않을 것을 나 스스로 안다.” 윤회 속에서 수없이 탄생하던 일이 현생에 막을 내리고, 청정하게 살면서 모든 수행을 다 마쳤으니 내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 스스로 안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섹스를 하고(음욕), 맛있는 것 마음대로 먹고(식욕), 큰 부자가 되고(재물욕), 밋거나 싫은 사람을 욕설로 제압을 하거나 쫓아버리고자 하는 마음(분노) 등의 감성적 번뇌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아닌지, 나 스스로 너무나 잘 안다.

또, 세상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의문(우치, 사건)인 인지(認知적

번뇌를 내가 모두 해결했는지 아닌지, 나 스스로 잘 안다. 수행을 통해서 이런 감성적 번뇌^{修惑}와 인지적 번뇌^{見惑}를 모두 제거했을 때,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한^恨 없기에, 내가 내생에 다시 태어나려고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내생의 삶을 받지 않을 것을 나 스스로 안다”고 노래하는 것이다.

이런 자각을 ‘해탈지견^{解脫知見}’이라고 부른다. 예불문의 오분향례에서 노래하는, 부처님과 아라한이 갖추신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의 오분법신^{五分身} 가운데 마지막의 해탈지견이다. 내가 번뇌에서 해탈했다는 자각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나에게 음욕, 재물욕, 명예욕, 분노, 질투심과 같은 감성적 번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고, 세상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의문 가운데 아직 풀지 못한 것이 남아있으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깨달았는지, 아닌지는 내가 제일 잘 안다. 한 길 사람 속의 일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이기찬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문헌번역실장

固是常情侮賤貧 빈천하면 깔보는 게 보통사람 마음인데
 超然獨也爾何人 홀로 거기에 초연한 그대는 누구인가
 靈心炯似照犀水 물속을 환히 보듯 신령스런 마음 지녀
 外物輕如棲草塵 풀에 붙은 티끌처럼 외물을 경시하네
 礪磊謾成詩酒傑 응어리 씻어 내려고 시인 술꾼 되어선
 嬉遊時夢葛義民 흥겹게 즐기면서 태평 세상 꿈도 꾸지
 不須後世子雲識 후세에도 알아줄 이 없단들 어떠리
 不須後世子雲識 그대예겐 분명히 고귀한 것이 있나니

- 윤기(1741~1826), <무명자집> 시고(詩稿) 책 2

이 시는 영정조 때의 학자 윤기가 이단전(李爾全, 1755~1790)이란 인물에 대해 읊은 시이다. 이단전 그는 신분이 미천한 종이였다. 거기에 발음이 부정확한 언어장애가 있었고 한쪽 눈을 잃은 시각장애를 지녔으며, 체구가 작은 왜소증에다 마마를 앓아 얼굴이 심하게 옅은 사람이었다. 이 천형과도 같은 기구한 운명 앞에서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참담하고 기막혔을까? 자기 업보라 생각하며 평생 죄인으로 살다 갔을지 모를 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속담이 88개나 된다는 사실에서 증명되듯, 예로부터 장애인도 가문의 부끄러움으로 여겨져 숨어 살아야 했고 밖에 나가면 편견과 질시의 대상이었다. 우리만큼 개성에 대한 거부감과 남다른 것에 대한 배척이 심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는가? 게다가 노동력이 중시되는 농경사회에서 장애인은 더 더욱 밥을 축내는 천덕꾸러기였다. 이러한 시대의 한가운데 던져진 이단전의 삶이 어떠했을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받았을 무시와 조롱, 그리고 그로 인한 열등감과 상처의 깊이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그래서 더욱 처절했을 그의 자의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조물주는 대관절 무슨 생각으로 조선 땅 한 구석에 날 낳았을까. 혹여라도 천축에 가게 된다면 무슨 인연인지 부처께 물어보리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끝내 그를 키우고 구원한 것 역시 사람이었다. 어깨너머로 글을 터득하는 재주를 주인인 유언호가 알아보고 키워주었고, 그의 남다른 시적 재능은 남유두와 이덕무에 의해 꽃을 피웠다. 그의 시는 “화를 내는 듯, 비웃는 듯, 밤에 과부가 곡을 하는 듯, 길손이 추운 새벽에 일어나는 듯”하고, “뒤편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평범한 시상을 초월해 있다.”고 평해진다. 시대에 대한 비판 정신이 있고 마음이 외로운 이들을 향한 위로가 있고 영롱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애기다.

밀턴도 실명한 후에 <실낙원>을 썼으며, 시인 바이런도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도 왼쪽팔 절단장애였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간질이였으며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도 시각장애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승리의 신화를 쓴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개인의 인간 승리와 성공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이단전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즐기면서 인생의 성취를 이루도록 함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이웃으로 대하며 더불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무릎 꿇고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어야 한다.

이 달은 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24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24절기 중 6번째이자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穀雨는 매년 4월 20일경으로, 곡식 곡에 비 우가 내리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봄의 1번째가 입춘, 봄의 시작을 알리며 보통 이날부터 봄이라 칭하고 2번째가 우수, 눈이 녹아서 봄비가 내려 싹이 틔를 말합니다. 3번째가 경칩,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남을 의미하고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4번째 춘분, 낮이 길어지는 시기며 5번째 청명, 하늘이 맑아진다는 의미로 봄 농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우穀雨, 봄비가 내려 여러 가지 작물에 싹이 트고 못자리를 내는 등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됨을 말합니다.

곡우 무렵에는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여서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등에는 곡우물(나무수액)을 마시기 위해 깊은 산이나 명산을 찾아 다녔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곡우물이란 자작나무 껍질에 칼로 흠을 내어 채취하는 물로 밑동에 상



이 특징입니다. 보통 찻잎의 채취는 입하 전후에 이루어지지만 여린 찻잎을 가공해 만든 우전차는 차나무 특유의 풋풋한 향기로 봄이 왔음을 알려주어 계절의 상징이라 불립니다.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생산량이 적어 매우 귀한 고급차이며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인해 날씨가 따뜻해져 녹차의 잎도 빨리 싹트기에 따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곡우 무렵에는 흑산도 근처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가 북상해서 충남까지 올라와 서해에서 조기가 많이 잡히는데 이때 잡히는 조기를 ‘곡우사리(곡우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조기는 아직 살은 적지만 연하고 맛이 있어 전국의 수많은 어선들이 몰려오며 전남 영광의 한식사리, 입하사리 때보다 알이 많이 들어있고 맛이 좋아 가장 으뜸으로 친다고 전해집니다.

처를 내거나 가지를 늘어뜨리고 끝을 잘라 병 속에 꽂아 두면 하룻밤 사이에 병 가득히 물이 고입니다. 이 물은 위장병과 신경통, 이뇨 등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곡우穀雨 전에 찻잎을 따서 만든 차를 우전차雨前茶, 곡우 이후에 수확한 차를 우후차雨後茶라고 부릅니다. 우전차는 이른 봄 가장 먼저 딴 찻잎으로 만든 차라 하여 첫물차라고도 하며 은은하고 순한 맛

과거 농경사회가 중심이었던 우리나라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일조량, 강수량, 기온을 예측해 만든 24절기를 통해 15일을 생활 패턴으로 삼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상 기후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는 여전히 1년 4계절을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24절기, 현명하게 잘 활용하여 더 유쾌하고 조금 더 건강한 1년을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홍합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울릉도가 내어주는 산과 바다의 진미는 과연 어떤 맛일까? 이곳은 해녀들이나 머구리(장비를 메고 잠수하는 남자)들이 따다 주는 자 연산 홍합과 따개비로 밥을 짓는다고 한다.

음~ 완전 통통한 모습만큼 씹는 맛도 향도 일품이다. 양념장에 쓱쓱 비벼 명이나물에 한 바퀴 돌려서 입으로 직행하기 바쁘다. 명이나물 역시 최고의 맛이다. 이렇게 배를 불린 뒤 우리는 관음도로 향했다.

주상절리 관음도

관음도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무인도인 섬이다. 멀리서 바라보는 관음도의 모습은 마치 둥근 박을 두 개 연결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관음도를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나는 자매도시인 포항에 살고 있어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다.

걷는 길마다 전부 풍경이 되고 울릉도가 찢 뷰 맛집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관이 펼쳐졌다. 계단을 걷다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에 와~ 소리가 절로 나온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풍경은 바다 주변으로 깎아지른 주상절리들이 병풍처럼 에워싼 절경이었다. 관음도를 들어가는 길은 연도교 라는 다리가 놓여있어 섬 투어를 할 수 있다. 관음도에서는 울릉도 부속섬 중 제일 큰 죽도가 보인다. 관음도를 한 바퀴 도는 데에는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걸으면서 발아래로 펼쳐진 울릉도 바다를 바라보며 무념무상으로 걷다보면 이 생각 저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연신 핸드폰 안에 풍경을 담게 된다.

사진을 찍다가 문득 바라본 폰 화면 속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내 인생도 지금 오후 3시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쁘게 달려온 오전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식사로 잠시 에너지를 채운 뒤 커피 한잔 여유를 부려보는 오후 3시. 지금 딱 나라는 생각에 피식 웃어 본다. 남은 저녁이 주는 삶을 위해 다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나를 위로도 하고 토닥토닥 격려도 하는 시간을 갖다보니 어느새 한 바퀴를 다 돌았다. 많은 계단을 걷다 보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법 땀이 난다.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하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관음도를 내려와 향한 곳은 바위섬이었다. 울릉도는 제주도처럼 화산이 폭발하여 생성된 섬으로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바위들이



많다. 화산폭발로 용암이 바다로 흘러 굳어 버린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희한하게도 붙여진 이름과 찰떡인 바위들이었다.

관음도를 내려와 제일 먼저 만나 본 삼선암이었다. 울릉도 3대 비경 중 1경이라고 한다. 세 개의 기암으로 전설을 들을 수 있었다.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세 선녀가 울릉도에 내려와 목욕을 하곤 했는데 하루는 옥황상제가 걱정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장수와 날쌔 용을 팔려 보냈다. 선녀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목욕을 하다가 돌아갈 시간이 되어 살펴보니 막내 선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막내선녀는 함께 온 장수와 사랑이 짝 트게 되어 언니들 몰래 정을 나누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옥황상제가 노하여 세 선녀를 바위로 만들어 버렸다. 바위의 모습을 보면 두 바위는 나란히 서있는데 이 바위들이 언니들 바위이고, 홀로 떨어져 있는 작은 바위가 막내 바위라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언니들이 무슨 죄야? 막내와 장수를 혼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음을 지었다.

바위를 본 뒤 바라본 바다 빛은 너무나 고와서 깜짝 놀랐다. 다음 둘러본 바위는 거북바위였다. 거북바위는 파도의 침식으로 형성된 거북모양의 바위이다. 특히 이곳은 낚시 포인트로 유명해 고기잡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다음은 코끼리 바위로 울릉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바위였다. 코끼리가 물을 먹고 있는 형상으로 용암류에서 나타나는 주상절리가 바위 전체를 덮고 있어 마치 코끼리의 피부처럼 보였다. 바위에 뚫린 구멍이라 공암 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어느 섬에나 있는 촛대 바위. 다른 섬들을 여행하다 보면 촛대바위는 하나씩 있기 마련, 역시 이곳 울릉도에도 촛대바위가 있다. 저동항 방파제에 붙어 있는 촛대바위는 울릉도읍 저동리의 상징이라고도 한다. 새해 일출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언젠가는 이곳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다. 특이하게도 이곳 바위에서는 소나무와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울릉도 명물 중 하나인 따개비 칼국시로 배를 불렀다. 역시 여행은 좋은 것이야~ 행복한 미소와 함께 오늘의 하루 여정을 사진으로 확인하며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
다.



<종가관등재현도>는 종로에서 행해지던 관등놀이의 모습을 고증을 통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종로를 환하게 밝혔던 '종가관등'의 모습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I. 사신

II. 화성원행반차도

III. 무예 24기

IV. 전래동화

V. 시집가는 날

VI. 삼일유가

VII. 조선의 풍속

VIII. 12지신

전통등 傳統燈 이야기

전통등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우리 고유의 등을 말한다.
최근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한국인
의 의식과 정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전통등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을 관등놀이라 한다. 한국의 관등놀
이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국가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
로 확실히 뿌리를 내렸다.

유학이 통치이념이던 조선시대에도 관등놀이는 계속되었다.
이는 민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왕실에서도 행해졌다. 그러나 왕
실의 관등놀이는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에서 행해져 민간의 놀이
문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민간에서는 세시풍속화 된 관등
놀이를 진행했는데, 온갖 기예와 가무가 결합된 종합연희의 성
격을 띠었다.

현재 전통등 행사는 연등회 燃燈會가 중심인 불교의 연등 燃燈과 축제
로 대표되는 관등 觀燈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연등은 등을 밝히
는 행위, 즉 등을 만들어서 밝히며 소원을 비는 종교적 관점이 강
조된다. 관등은 등을 보면서 즐기는 행위인 유희 遊戱가 중심이다.

현재 한국의 전통등은 1996년, 사라져가던 것을 활성화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복원 초기 전통등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는 기술적으로 완숙의 경지에 다가가고 있다. 불교계의 연등회는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16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I. 사신(The Four Symbols of Chinese Constellation)

동서남북 사방을 호위하는 동물로 일반적으로 청룡^{靑龍}·백호^{白虎}·주작^{朱雀}·현무^{玄武}를 일컫는다. 이런 상상 속의 동물은 사악한 기운을 막아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작품은 2016년 '수원, 정조대왕의 꿈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수원등불축제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앙에 정조대왕을 배치하고 사방에 사신을 배치해 태평성대를 기원한 정조대왕의 염원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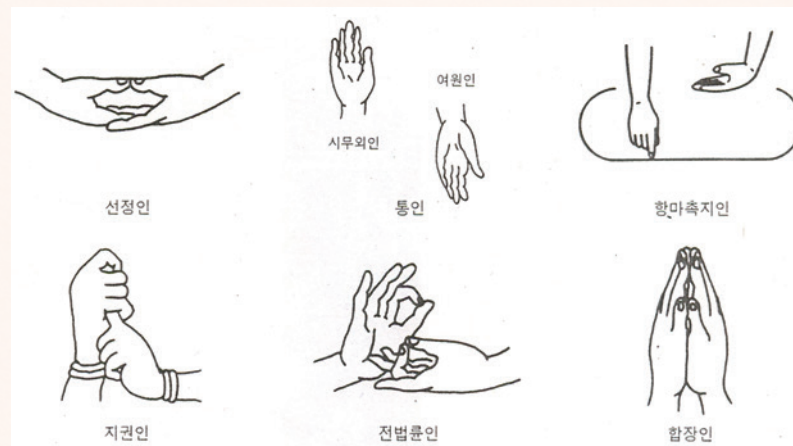
‘옴훬야호사’의 수인^{手印} 지권인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수인^{手印}이란 무엇일까요? 절에 가면 부처님의 손 모양을 잘 보세요. 각각 다르게 표현됩니다. 어느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밀을 가리키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부처님은 가슴에 손가락을 동그랗게 표현하시고, 주먹을 짓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손 모양과 자세를 보고 비로자나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등 존상을 구분합니다.

수인의 인^印은 도장을 뜻하고 각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손 모양은 부처님의 깨달음, 설법 등을 중생에게 보여주는 뜻이며 중생 구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항상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이며, 왼손은 중생의 세계를 뜻합니다.

종단에서는 49일 불공기간 중에 진호국가불공을 할 때 ‘옴훬야호사’ 진언을 합니다. 이때 취하는 모습을 지권인^{智拳印}이라고 합니다. 이 수인은 두 손 엄지를 속에 넣고 주먹을 쥐고 오른손 엄지 끝과 왼손 검지 끝을 맞닿은 후 가슴에 올려놓는 형태입니다. 비로자나(대일여래)부처님의 수인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중생자신의 번뇌를 없애며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고, 중생의 서원을 부처님께 전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람’자관을 할 때 오른손바닥이 위로가고, 왼손바닥이 아래로 가도록 하는 것은 참선하는 자세이며, 선정인^{禪定印}이라고 합니다. 이 수인은 부처님이 보리수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자세입니다. 밀교에서는 유가삼밀을 나타냅니다. 수인의 신^身, 진언의 구^口, 비로자나불 의^意를 담습니다.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은 대웅전 주불로 계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하는 마귀들을 굴복시킨 수인입니다. 오른 무릎위에 오른손은 아래로 향하고 왼손은 선정 자세를 취합니다. 그 밖에 아미타부처님의 9품수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등 여러 수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인^{契印}은 관세음보살님이 들고 있는 감로수병, 연꽃 등과 같이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을 의미합니다.

눈이와 툴이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등

눈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10여 년 전이다. 산골이 눈으로 하얗게 되었을 때다. 양 옆구리가 서로 붙을 지경이 된 조그만 개가 퇴비더미를 헤치고 있었다. 불러서 찬밥 한 덩이를 주었다. 허겁지겁 먹어치우더니 집 안에 들어오겠다고 방충망까지 뜯었다. 아랫집 형님 말에 따르면 그 개는 한 일주일 성황당 근처를 얼씬거렸다 한다. 개는 ‘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식구가 되었다.

산골에서 사람만 보고 사는 눈이에게 아무래도 동족의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았다. 장에 나갔다. 노인의 종이상자 속에 젓떼기 한배 새끼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중에 수놈은 한 마리뿐이었다. 그 강아지는 툴이가 되었다. 어미와 떨어진 툴이는 눈이 덕분에 새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갔다.

다시 겨울이 되고 산골에 눈이 쌓였다. 눈이가 툴이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제법 쌓인 눈 속에 툴이는 안간힘을 쓰며 제 눈이를 따라간다. 눈이는 앞서 걷다가 뒤돌아서 툴이를 기다려준다. 두 마리 작은 짐승의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고 어여쁘다.

눈이와 툴이는 서로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 기다려주고 돌봐주는 눈이의 기특함은 툴이가 있기에 드러나고, 힘껏 따라가는 툴이의 기특함은 눈이가 있기에 드러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며 함께 경험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아리따운 현상이다.

우리의 세계는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끝없이 흘러간다. 그 무엇으로 고정되고 한정될 수 없는 무유정법의 세계다. 이렇게 그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없는 이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비로소 드러난다.

‘나’는 ‘너’에게 의지하여 드러난다. 자식은 부모에, 남편은 아내에 의지하여 드러난다. 흑_黑은 백_白에 의지하여 드러난다. 동쪽은 서쪽에, 위는 아래에 의지하여 드러난다. 역방향도 마찬가지로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이 한 쌍은 그 한쪽이 없다면 함께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개아_{個我}’라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가릴 수 없는 한 쌍 중에서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쪽만 내세우려고 기를 쓴다. 너를 부정하고 나를 내세운다. 부모를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한다. 흑을 무시하고, 서쪽을 무시하고, 아래를

무시한다. 이것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정도가 아니다. 제 목을 제가 조르는 자해^{自害}요 자폭^{自爆}이다.

제 곁에서 저를 드러내주고 성장하게 하는 존재들이여, 은혜로운 신비여. 이렇게 그대와 함께 무한을 호흡하나니, 이 이치를 거듭 확인하게 하소서.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Photo by Alvan Nee on Unsplash

이토록 강력한 마음의 힘!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사람의 몸은 언제나 마음이 규정해 준 것을 따릅니다. 법구경에 서는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이 주인 되어 모든 일을 시키고 세상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일을 시킬 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시에 그 일을 시작합니다. 나아가 내 몸만이 아니라 나와 둘이 아닌 이 세상 속에 그 마음의 일을 펼쳐내는 것이지요.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내 몸도 다스릴 수 있을뿐더러, 병도 고칠 수 있고, 이 세상도 뜻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곧장 우리 몸과 삶을 변화시키고 우주를 변화시킵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 때 우리 뇌는 뉴로펩티드라는 화학물질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주는 수용체가 뇌 세포 표면에 있음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즉 생각할 때 화학물질이 생겨나고 이를 뇌 세포의 수용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수용체가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의 대부분의 부위들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디팩 초프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빈틈없이 정교한 약국이 당신 몸 안에 있다. 당신이 처방하면 당신 몸은 정확한 분



량의 약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기관을 위하여 부작용 없도록 조제해서 한 봉투에 빠뜨리지 않고 담아준다.'

또한 마음은 노화 역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디팩 초프라가 정신병동에서 근무할 때, 환자들 가운데 시간 개념이 없는 한 여인이 실제로 몸이 늙지 않는 듯 보였고, 30대 모습을 하고 있는 60대 여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이 곧 그러한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힘은 이토록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외부에 있는 물질세계 보다는 모든 것의 원천인 내부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마음의 세계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 '법상 스님의 묵탁소리' 공식 카페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에 60여 곳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



01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아이

02 고기만 먹고 채소는 안먹는 아이

03 잘 먹지 않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

04 제자리에서 안먹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

05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06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아이

07 씻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08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09 계절과 상황에 안맞는 옷을 입으려는 아이

10 스스로 옷과 신발을 벗지 않으려는 아이

02. 고기만 먹고 채소는 먹으려 하지 않는 아이

아이가 고기반찬을 정말 좋아한다. 고기반찬은 여러 번 반복해서 더 먹으려고 하지만 채소와 같은 다른 반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부모가 채소를 먹여보려고 몰래 입에 넣어주면 바로 뱉어버린다. 다른 음식에 몰래 숨겨서 먹여보려고 시도해 보지만 결국 실패한다.

· 원인

- 1) 이유식 시기에 음식을 만드는 다양한 재료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당한 재료의 크기로 제공 되지 못했을 경우
- 2)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반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제공할 경우
- 3) 부모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식단이 제공되었을 경우
- 4) 구강의 힘이 약하거나 늦은 발달로 구강의 제 역할이 어려운 경우

· 지도방법

- 1)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 2) 구강 구조의 문제가 있는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본다.
- 3)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재료로 주방 요리와 같은
역할 놀이를 하며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환경을 제공한다.

※ TIP

- 싫어하는 재료를 이용해 음식점 놀이와 같은 역할 놀이를 한다.
- 요리 활동에 아이를 직접 참여시켜 함께 요리한다.
- 다른 재료가 함께 들어간 반찬을 만들어 먹어본다.
- 싫어하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여 그 맛을 느껴보도록 한다.

- 4) '난 절대 토마토 안 먹어'와 같은 동화책을 읽으며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 5) 푸드 브리지 기법을 사용해본다. 푸드 브리지는
같은 재료를 이용해 단계별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싫어하는 음식을 친숙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 인터넷 사이트

중앙보육정보센터 육아정보 → 영양정보

서울시 식생활 정보센터,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밥상

지난호 정답

①㉓ 옴		야	호	㉒ 사		㉑ 도		②㉑ 칭	찬
니				랑		⑩ 하	네	다	
③ 버	스	㉑ 킹		④ 니	㉑ 체			⑤ 오	㉒ 온
스		⑥ 메	시		게				새
		이			⑦ 바	라	㉑ 밀		미
⑧㉑ 원	두	커	㉑ 피		라		⑨ 교	㉑ 차	로
본			⑩ 자	수		㉑ 보		력	
⑪ 대	법	㉑ 원			⑫ 아	리	수		㉑ 파
조		⑬ 주	식			달			상
⑭ 필	기					⑮ 마	이	동	풍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㉔		㉒			㉑		②##		㉓
				③㉕		㉔			
④	㉖							㉗	
	⑤		㉘			⑥			㉙
⑦					⑧㉚				
							㉛		
㉜					⑨				
		㉝						⑩**	
				*		#			
⑪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가로 열쇠

- ① 신밀,구밀,의밀 삼밀을 관하는 밀교의 수행
- ② 오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으로 유명한 도쿄 도시 문화의 중심구
- ③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 ④ 목표한 곳이나 일정한 수준에 다다름
- 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소리 내서 하는 밀교의 대표적인 음성염송
- ⑥ 인절미라고 불리는 품종의 개, 골든 0000
- ⑦ 집이나 길을 잃은 아이
- ⑧ 거대한 고릴라가 주인공인 영화 제목
- ⑨ 광시곡이자 자유로운 기악곡, 보헤미안000
- ⑩ ABC주스에 속하는 자주색 야채
- ⑪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수립한 임시정부

세로 열쇠

- ㉔ 여자, 돌, 바람이 많은 섬, 제주도의 다른 말
- ㉒ 조개 내부 안쪽 면에 붙어 있는 근육
- ㉑ 정신이나 육체가 지쳐서 고단한 상태
- ㉓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쳐서 베이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구기 종목
- ㉔ 국보 지정 조선후기에 제작된 풍만한 기형을 가진 대형 백자
- ㉕ 현장이나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해 실시간으로 하는 방송
- ㉔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건강식품, 병아리 머리모양과 닮은 콩
- ㉗ 불교에서 참된 수행의 결과로 생성된다고 여겨지는 구슬 모양의 유골
- ㉘ 꽃을 집어 들고 웃음을 띠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 ㉚ 알래스카연안,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되는 거친 표면의 큰 게
- ㉛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주장한 인도의 독립운동지도자
- 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
- ㉝ 나라에 혼란이 없고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시대
- ㉞ 가족의 먹거리를 찾아 주기적으로 떠돌아다니며 사는 민족
- * 학교에서 학급을 맡고 있는 선생님
- ** 코의 염증
- # 남몰래 사정을 살핌, 간첩
- ## 그 당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 00저널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보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내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마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작년 이맘 때 방영해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노희경 작가의 <우리들의 블루스>
마지막회 엔딩 자막입니다.
드라마는 매회 에피소드마다
다양한 주인공들의 여러 갈등을
전개하지만, 결국 끝에가서는
위로와 다독임, 이해 속에서
서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과정에서
이 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삶이 때론 축복이 아니라
짐처럼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응원 받아야 할 삶이 따로 있는게 아니듯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 그 삶 자체를 맘껏 행복하라고.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봄,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미경 김운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오승헌 오채원 오현준 우 인 이수영 이인성
이혜성 자선화 정화연 한철수

발행일 총기 52(2023)년 4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김상미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4월호



행복하라
더불어 행복하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